

# 대학생의 복지와 장학금

성균관대학교 교수  
고 장 완

## 1. 들어가며

교육에서 복지에 관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으나, 일반적으로 교육복지에 대한 관심은 1995년의 5.31 교육개혁안에 교육복지국가라는 용어가 사용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본다. 이후 정부는 1997년에 교육복지종합대책을 발표하여 교육취약집단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였고, 1999년에는 만 5세 아동 무상교육, 그 다음해에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을 실시하였다. 2003년에는 도시 저소득층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004년에는 정부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아동센터, 희망(드림)스타트 등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였다. 지난 2008년부터는 정부가 교육복지 확대를 국정 전략으로 표방함으로써, 기존의 사업이외에 초 등돌봄교실,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 등 추가적 사업이 시작되었으

며, 현 정부 역시 교육복지를 강조하며 우선배려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소득수준간·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모두를 위한 교육기회 확대 등 3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교육복지 마련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사업의 거의 대부분이 유·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고등교육 단계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 정책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다행히 최근들어 대학생의 복지에 관한 관심이 점점 더 증대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국가는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국가 장학금을 크게 확충하였으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정부나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 대학생 연합기숙사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대학들도 학생들에 대한 복지를 강조하고자 학생복지과 등 관련 부서의 이름도 바꾸고 학생복지위원회나 장학복지위원회등 학생복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교육복지 논의에 있어서 소외되어 왔던 대학생의 복지에 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며, 이제는 대학생의 복지에 관한 심도 있고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이 글에서는 대학생복지에 대한 필요성, 개념, 내용 등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비록 간략하게나마 대학생 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대학생의 복지에 있어서 핵심이 되고 있는 국가장학금에 대한 논의를 추가하여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대학생 복지에 관한 접근

앞서 살펴본 대로 그동안 대학생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나 필요성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높은 등록금과 대학의 책무성 강조, 대학생의 대학생활 부적응, 대학생활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 등이 부각되면서 대학생의 복지에 관한 필요성도 함께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먼저, 대학의 높은 등록금이 지속되고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이 강화되면서 대학생의 복지가 이제는 대학이 학생에게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의 차원이 아닌 학생이 대학으로부터 당연히 제공받아야 하는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다니고 있는 만큼 단순히 지식의 습득에서 벗어나 풍부한 교육경험을 위하여 대학으로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하였으며, 대학 역시 사회와 대학생에 대한 책무성 강화 측면에서 학생복지에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둘째로는 최근 들어 대학생 구성원의 다양성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 대학에서는 입학사정관 전형 등 다양한 입학전형을 통하여 기존과는 다르게 매우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특히, 일반대학의 경우 기존에는 대학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전문계고 졸업자 등을 비롯한 다양한 대학교육취약계층에 대한 대학교육의 기회가 크게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교육취약계층의 확대는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켰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국민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일반 대학생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요구도 함께 높아졌다. 대학생들은 자신들이 주로 대학에서 생활하고,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대학생활을 하는 만큼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대학생의 복지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교육복지에 대한 개념적 접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협의의 교육복지로서 교육소외 및 결손 집단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교육복지이다. 이는 선별주의의 원리에 따라 교육취약 계층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의무교육 실시나 교육비 보조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는 보편주의적 입장에서 교육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교육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여건을 지원하고자 하는 광의의 교육복지 개념이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교육복지의 대상은 모든 학생이 되며, 투입만이 아니라 교육의 과정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대학생의 복지는 협의의 의미로는 저소득계층 출신이나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행·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광의의 의미로는 모든 대학생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경험을 하고 자신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적 구분은 복지의 대상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둬으로써 실질적인 교육복지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다. 특히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복지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먼저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앞서 논의한 대학생의 복지에 대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대학생의 교육복지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적 측면에서 교육복지를 살펴볼 수 있다.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교육적 측면의 복지는 학업 부진자에 대한 보충학습제공이 대표적이며, 광의의 교육복지 개념으로 본다면 모든 학생에게 바람직한 교육경험을 제공해주는 것을 들 수 있다. 현재 많은 대학에는 다양한 입학전형으로 인하여 기초학력미달자나 학업성취미달자, 영어강의 미흡자 및 부적응자 등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학교육취약자들에 대한 보충학습이나 추가적 교육기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기회 또한 대학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충분한 보충교육의 기회가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나아가 모든 대학생들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무엇이 바람직한 학습경험이고 교육적 활동인가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교육경험을 증진시키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심리적 측면이다. 이러한 것에는 대학생에 대한 학업이나 진로상담, 생활적응 프로그램의 제공·운영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대학생들은 학점이나 진로, 취업 등에 대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에는 학비마련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대학별로 설치된 상담센터가 우선적으로 활성화되어

야 한다. 특히 이러한 문제점을 가진 학생들의 경우는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상담센터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시설·환경적 측면이다. 이는 대학 내의 편의점이나 매점 등 각종 편의시설을 포함하며 나아가 강의실 환경 개선이나 스마트교실이나 스마트 교탁의 구비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으로 기숙사의 확충을 들 수 있다. 현재 많은 대학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학생기숙사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적 측면이다. 재정적 측면으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확충이 대표적이다. 이들에 대한 장학금은 가급적이면 등록금과 동등한 액수를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등록금 뿐만 아니라 일정정도 생활비에 대한 보조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 후에는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대학생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대학생의 복지와 국가장학금

대학생의 복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 재정적 지원이다. 물론 대학생의 복지에 있어서 재정적 지원은 앞서 이야기 한 하나의 요소에 지나지 않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높은 등록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비추어 볼 때, 재정적 지원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동안 대학생의 장학금은 주로 개별 대학별로 지급되어 왔으며, 국가차원에서 장학금은 주로 성적우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왔다. 국가차원에서 저소득층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8년부터로 28,791명의 학생들이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미래드림)으로 590억 원을 지원받았다. 이후 차상위계층장학금(희망드림)이 신설되고 장학금과 지원학생 수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0년에는 169,052명의 대학생이 2,419억 원의 장학금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인당 평균 장학금액은 약 143만 원 정도로 등록금을 대체하기에 크게 부족하였다. 다행히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제도를 개편하여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즉 지난 2012년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을 1.75조 원으로 크게 증액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소득계층을 8분위까지 확대하여 소득분위별로 차등적인 장학금을 지원하는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4년의 경우 소득연계 국가장학금 총액은 3조 4,575억 원으로 이중 대학자체 노력연계 장학금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유형 1의 장학금은 약 2조 8,35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유형의 경우 소득 최하위계층은 집중지원(2분위까지 100% 지원)을 하고, 중하위분위까지 지원을 확대(3분위 75%, 4분위 55%, 5분위 35%, 6분위 25%)하였다.

많은 연구들과 전문가들은 국가장학금 체제의 기본 방향은 저소득층을 위해 재정적 필요에 따른 재

정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저소득층에 대한 이러한 장학금의 확대는 대학생의 복지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의 복지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의 국가장학금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방안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먼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 규정에 나와 있는 장학금의 지원범위를 ‘대학 등록금 범위 내’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교육비나 생활비까지 포함한 ‘대학교육비’의 범위로 확대하여야 한다.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는 등록금뿐만 아니라 교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교육비와 주거비 등 생활비도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단지 등록금뿐만 아니라 대학교육비를 전제로 지원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대학교육비의 개념 정의와 산출방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국가장학금지원에 있어서 요구되고 있는 성적기준을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매우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많은 연구와 사례들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비 보조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근로활동에 보내고 있으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더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거의 모든 대학이 교육의 질 관리를 이유로 절대적 기준이 아닌 상대적 기준에 의하여 학점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학생들은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현재 기초-1분위 학생들의 경우 성적이 70점 미만이면 1회의 경고를 주는 것으로 변경되었지만, 현행 장학금 제도가 교육비와 생활비를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만큼은 이러한 기준을 좀 더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 4. 글을 맺으며

대학생의 복지에 관한 논의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정부와 대학 역시 대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기속사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나 대학의 프로그램이 단기적이고 즉흥적이지 않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즉, 대학생의 복지란 무엇이고 누구를 대상으로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나 대학의 프로그램을 일회성이 아닌 어떻게 제도화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생의 복지는 교육적, 심리적, 환경적, 재정적 측면 등을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 그러나 특히 재정적 지원의 확대는 현 시점에서 매우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이 크게 확대되어 이전과 다르게 많은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다만 저소득층 학생들의 복지를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현재 규정에 있는 등록금 범위 내의 지원을 대학교육비 범위 내의 지원으로,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성적기준을 좀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광의의 복지개념에서 추구하고 있는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교육 과정에 대한 재

정적 지원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생의 적정 대학교육비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각종 대학 교육프로그램과 대학 활동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생들은 바람직한 교육경험과 자신에 맞는 적절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누구나 행복한 대학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학생 복지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 필자소개

고장완 | 성균관대학교 교수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미국 미주리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과 미주리주립대학교 연구원, 조지메이슨 대학교 책임연구원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대학교육효과성센터 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대학생의 학습경험 분석 연구, 미국 고등교육의 재구조화 분석, 미국 고등교육의 포물러펀딩 사례 분석, 미국의 대학특성화 정책분석(공동) 외 다수가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대학평가, 대학교육효과성, 고등교육 국제화 등이다.